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04 2025 통권 613호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십자가의 고통 끝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으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동굴 속 어둠을 밝히며 새 생명을 일깨우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가집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 선교 · 교육 · 성도의 교제 · 봉사

4월 목회력

04 금 ·연합권찰모임
06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찬양예배 성찬
13 주일~**19** 토 ·한경직목사 기념주간
20 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음악예배
27 주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사회봉사주일
05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13 주일 ·종려주일, 3040연합예배, 제직회
18 금 ·성금요일, 한경직목사 추도예배, 심방준비회
21 월~**23** 수 ·산상기도회

만남

2025년 4월호
통권 613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수건과 세마포뿐이었습니다 **김운성**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04 6·25때 대한민국 구한 영락교회 전도운동 **박명수**
08 AI시대, 손글씨 기도문 쓰는 까닭 **탁현수**
10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춘복**

특집 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시작
14 부활, 영원한 생명 향한 소망 **이성희**
17 그리스의 부활절 **임주성**
20 '회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위한 기도 **조성환**
22 나의 부활절 이야기 **정은미**

특집 Ⅱ 한경직 목사 25주기
24 삶의 자리에서 한경직 톺아보세요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6 한 목사님을 기리며…'축복의 통로'展 **최진희**
28 그리스도인의 삶 분명한 답 찾아 **이정숙**
30 "잘하였소" 선한 음성 목사님 그립습니다 **한진유**

땅끝까지 이르러
32 M국에서 이뤄가시는 복음 사역 **황관중**

영락 글로벌
34 주님과 교제하는 게르 몽골어예배팀 **통가락**
36 열도선교 꿈꾸는 일본어성경반 **유승헌**

다음세대 / 청년광장
38 모세처럼… 믿음·용기·사랑 '레벨 업!' **신주현**
40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임세진**

영락의 울타리
42 광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정주언**
44 소그룹, 영적 성장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 **김영란**
46 소그룹 활동엔 은퇴없죠 **김재을**
48 사랑은 아프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김태영**
51 침침·뻑뻑… 눈 노화 오나봐요 **황덕진**
54 영락의 뜰에서 신앙의 길동무 소망 **박동진**
55 생명의 떡 **서동희**

교회소식
56 삼일절기념예배 외
60 구스타프 클림트의 '시골화원'
61 새아기·새가정…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수건과 세마포뿐이었습니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복음 20:6~7)

칼뱅은 장로교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임종 때 '나를 제네바 공동묘지에 묻고 비석 세우지 말라. 비석에는 존 칼뱅(John Calvin)이라 하지 말고, 예수(Jesus Christ)라 새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묘비에 J.C라 썼는데, Jesus Christ도 되고 John Calvin도 됩니다. 그의 한 후배는 "칼뱅은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영혼은 하늘에, 육체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 따위에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 후에 대해서도 욕망을 가집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은 무덤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열정을 쏟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무덤 공사를 시작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룩소르에 있는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되는 지하 무덤들과 카이로 근교의 피라미드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희극은 애굽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모셔 놓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죽음 후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대한 묘를 만들어 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보다 거대한 묘를 남겨도 좋은 모세입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인 그는 출애굽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모세야말로 피라미드가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묘를 알지 못하도록 감추셨을까요? 그것은 소위 '모세 종교'의 태

동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은 후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울던 북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달리, 모세는 눈에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모세에게 의지했습니다. 모세만 눈앞에 있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 정도로 모세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백성의 의존도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우상의 전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모세가 예배받는 모세 종교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덤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세를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모압 평지에서 데려가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근본 원인은 그가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만약 그가 가나안에서 장수하다가 죽었다면 가나안 한복판에 무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 종교를 만들어 두고두고 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무덤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천오백여 년이 지난 후 이상한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흘 전 십자가에서 죽은 한 남자가 안장된 돌무덤인데, 사흘 후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수건과 시신을 쌌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본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출애굽' 모세에게조차 무덤 허락 안 한
하나님의 뜻은 '우상의 전각' 걱정한 것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의 결정적 증거
이 땅의 무덤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해야

수건과 세마포뿐이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성도 역시 무덤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무덤에 집착하는 인생을 버려야 합니다. 무덤을 위해 돈을 벌고, 무덤을 만드느라 시간을 사용하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 업적의 탑을 쌓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무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에는 썩는 시체뿐이듯, 공적 탑을 아무리 위대하게 세워도, 죽으면 추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죽어 썩을 몸을 아끼지 말고, 주님의 뜻을 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무덤조차 남기지 않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성도입니다. 만남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영락교회80년사'가 외부 전문 연구진에 의해 집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역사관도 함께 구축되고 있어 금년 가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80년사와 디지털역사관을 준비하면서, 연구진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귀중한 사료들과 지난 80년을 감사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은 이러한 귀중한 사료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말까지 8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영락교회의 1950년 전도운동 6·25전쟁 때 대한민국 구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교회로 유명하다.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다. 만일 남한이 공산화되었다면 이들이 갈 곳은 없었다. 따라서 영락교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행동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온 세계는 이 신생 대한민국이 과연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 염려했다. 1949년 봄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한반도의 안보는 위태로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1949년 6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약 11만 명의 신·구 교인이 모여 합동국가방위대회를 열고 미군철수를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다. 당시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힘으로 팽창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한국 땅에서는 공산주의가 멈출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월남한 피란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열망했다. 같은 해 6월 30일에 이북인궐기대회를 열고 당시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일부 정치가들을 강력하게 규탄할 정도였다. 이 대회의 위원장이 정일형, 부위원장이 한경직과 채규항 등이었다.

1950년이 시작되자 영락교회는 그해의 표어를 '구국전도의 해'로 정했다. 한경직 목사와 강신명 목사는 연초부터 구국전도대를 조직해 지리산 일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역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옥호열을 비롯한 몇몇 선교사가 힘을 합하여 복음전도로 나라를 구하자는 일념으로 구국전도운동(Save the Nation Evangelistic Crusade)을 시작했다.

같은 해 3월 말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한경직 목사는 미국에서 온 순회부흥사 밥 피어스(Bob Pierce)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구국전도운동을 펼쳤다. 피어스는 대구, 부산, 대전,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국전도운동을 이어갔다. 특히 피어스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선수를 초청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했다. 이때 세계적인 육상선수 도즈(Gill Dodds)와 대학생 권투 챔피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언인 핀들리(Bob Finndley)가 내한하여 간증과 스포츠 실연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흥미를 주었다. 당시 피어스를 만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바로 기독교라고 말한 바 있다.

덜레스 美 특사, 6·25 직전 영락 기도집회서 큰 감명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6월 17일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특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는 미국장로교회의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였고, 할아버지는 인도선교사로, 외할아버지는 국무장관으로 지냈다. 유엔의 창립 멤버였던 덜레스는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 소관이었던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이 가능하게 했고, 1948년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당시 언론은 덜레스를 "대한민국 정부 탄생의 산파"라며 칭송을 마다치 않았다. 덜레스는 1953년 미국 국무장관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워싱턴 D.C.의 덜레스국제공항은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장로교선교사들은 6월 17일 덜레스를 초청하여 만찬을 가진 후 영락교회로 인도했는데, 마침 영락교회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이대영 목사를 모시고 부흥집회를 열고 있었다. 덜레스는 영락교회 신자들이 하나님께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덜레스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 덜레스는 6월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와 함께하는 한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연설하여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뒤 6월 21일 일본으로 가서 맥아더와 회담을 했다.

북 남침에 "공산주의 막아야" 美에 긴급전보… 유엔군 참전

덜레스가 일본에 머무는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전쟁

1949년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구국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영락교회. 앞줄 왼쪽 첫 번째가 한경직 목사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18일
38선을 방문한 덜레스 특사와 한미 고위 군인들
사진 NARA

이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덜레스는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오후 6시 맥아더를 방문했다. 맥아더는 북한의 공격은 총력전이 아니며, 소련의 개입은 불확실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덜레스는 자신이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경험을 말하면서, 남한은 그런 능력이 없으며 소련의 반격 위험이 있으니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후 9시에 본국에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전보를 보냈다. 이 전보는 미국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 35분(미국시간)에 수신되었다. 이런 결과로 6월 25일 저녁 6시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김일성의 남침을 불법이라고 규탄하고, 27일에는 회원국들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덜레스는 6월 29일에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과 만나서 남한은 자유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은 남한사회의 부패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정부의 자유실험 성공을 두려워한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성공이 소련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아시아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틀 후 7월 1일에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지상군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덜레스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영락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언급하며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방송했다. 1950년 7월 1일 덜레스는 미국 CBS와의 방송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전했다.

>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북쪽의 피란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2주 전 바로 이 시각에, 북쪽에서 온 3천여 명의 기독교인 피란민들을 서울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역을 통해 피란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기독교의 원칙에 헌신하는 남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이처럼 희망적이고 매력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덜레스는 미국의 각종 언론과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락교회 전도집회에서 목격한 월남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복음을 향한 열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와 민주주의 전파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공산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사명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덜레스와 함께 영락교회를 방문했던 옥호열 선교사는 1950년 7월 29일 국제선교협의회 총무 데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덜레스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그가 피란민 교회인 영락교회를 방문하도록 했다. 그는 겨우 몇 분 동안 짧은 인사를 전하려고 영락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 약 3천 명이 모인 전도집회에 참석하여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받은 덜레스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에 한국의 경건한 기독교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할 이유의 하나라고 했다.**

영락교인들, 정의의 십자군운동 아직도 긍지

영락교회는 오랫동안 이 같은 사실을 자랑으로 여겼다. 〈조선일보〉는 1971년 5월 1일 영락교회에 관한 기사에서 "6·25가 터지자 영락교회는 정의의 십자군운동을 전개, 반공전선에 나선 청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했고, 불우한 피란민구제에도 앞장섰다. 그때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이 미 의회에서 영락교회를 소개하면서 한국파병을 적극 추진했다는 일화를 교인들은 아직도 긍지로 지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록 덜레스가 한국을 방문할 당시 아직 국무장관이 아니었으며, 그가 미 의회에서 영락교회에 관해 언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영락교회 신자들의 모습에 감동한 덜레스가 트루먼 대통령과 유엔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참전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영락교회의 전도집회는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기도회였다. 만남

한경직 목사(맨 뒷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와 한국기독교연합회는 1950년을 '구국전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에 매진했다.

AI시대, 손글씨 기도문 쓰는 까닭

우리의 예상 수준 훌쩍 뛰어넘은 AI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Chat GPT를 선두로 다양한 오픈 AI가 개발되어 우리의 삶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 할 만큼의 정보량과 엄청난 속도의 연산을 통해 인간이 피와 땀을 흘려야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단 몇 초, 몇 분 만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시간에 수십만 권의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주고 요약까지 해줍니다. 초등학생 숙제에서부터 박사 학위자 수준의 논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글도 작성 가능합니다. 게다가 시와 소설, 에세이 같은 인간미가 필요한 창작의 영역까지 AI의 활용도는 우리의 기대 선(線)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기도노트, 펜글씨 기도문… '근원 향한 역행'

이런 시대에 기도 노트를 배포했습니다. 짧은 문서라도 컴퓨터 작성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 작업도 하는 시대에, 종이로 된 책을 배포하여 펜으로 쓰는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글씨가 익숙한 어른들은 차치하더라도, 키보드와 터치 패드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손글씨로 기도문을 적어 기도하자는 이 운동은 시대의 눈으로 보기에 역행(逆行)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르는 이들은 분명 시대착오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행은 '근원을 향한 역행'입니다. 역방향이기는 하지만 그 방향이 근원을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운동은 근원적인 운동입니다.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실은 시대를 초월하는 운동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운동이기에 '시대착오적이다' 말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듯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운동이며, 사실은 우리가 더욱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Ad fontes('근원으로'라

탁현수 목사
목양부
고양·파주교구

는 뜻의 라틴어) 그대로 우리 믿음의 근원,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기록으로 남는 글… 허투루 쓰는 사람 없어

또 동시에 이 운동은 진실함을 지향(志向)하는 운동입니다. 말은 가벼울 수 있지만 글은 무겁고, 저마다의 글들은 어떤 식으로든 역사가 됩니다. 말은 곧잘 사라지지만 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진지함을 잃지만 않는다면, 기록으로 남게 될 글을 가볍게 쓰고 허위로 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글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 덕분입니다. 따라서 기도문을 글로 작성하는 순간, 작성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쓰더라도 가장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됩니다. 진심을 말하는 글로 진실을 담아 쓰는 기도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진심 담은 기도문 남겨보길

이런 방식으로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기도의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눈물콧물을 쏟게하는 바로 그 글들입니다.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죄를 범한 순간도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 적힌 기도문 몇 편이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을 살렸는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구매하신 그 노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적힌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단 몇 페이지라도 진심을 담은 기도문을 적어 오늘의 다윗이 되어 보시길 권면합니다. '나의 기도' 운동에 동참해 이미 기도문을 적고 계시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이 운동이 교회창립 80주년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노트 꿀팁

tip 1

기도 노트의 기도문 적는 페이지는 총 250페이지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을 적으며 기도한다면 매일 적을 수 있습니다. 주일까지 적게 된다면 지면이 모자라게 되므로 추가로 노트를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tip 2

19세 미만의 경우, 기도 마일리지는 일주일에 세 번 주제별 기도문을 읽고, 세 번 기도문을 적을 시 (한 페이지당 10분 정도로 계산) 한 달에 4,800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꾸준히 읽고 적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적어도 4개의 기도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 참 쉽지 않은 숙제

저는 1992년~1998년까지 만 7년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기도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여전히 잘 알기가 가장 힘듭니다. 기독교 영성의 전부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에서 강조하는 '기도'는 참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소리쳐 도움을 요청해도 묵묵부답하신다고 여겨질 때, 많은 사람은 신앙의 혼란을 겪습니다. 기도가 어렵더라도 우리의 기도대로 즉시즉시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설명들

흔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부적절한 동기로 기도해서,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내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응답해주실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병든 아들을 가운데 두고 우리와 흥정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고침받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특별히 기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모두 자백했습니까? 전혀 그리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거나, 자기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설명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분명히 잘 어울리지 않는 설명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과장법' 인지해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법'을 수사학적 기법으로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

이춘복 위임목사
경기중앙교회

니다. 과장법이라는 것은 어떤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당시 선지자들의 언어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과장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마태복음 5:29~30)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사지 멀쩡하게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눈을 실제로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몸 가지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태복음 21:22)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로 쓰셨던 과장법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도 자판기도 아냐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만일 정말로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기도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면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의학이 발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습관적으로 핸들을 잡으며 잠시 기도한 후 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들을 잡고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전 운전하게 해 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안전벨트를 매죠? 이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까? 안전벨트는 사고에 대비해서 매는 것입니다. 안전 운전하

게 해 달라고 방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불신입니까? 기도했으니 안전벨트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참믿음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책무를 기도로 때우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계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동전을 집어넣으면 기적이라는 제품이 튀어나오는 자동판매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채울 때 응답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 평범해 보이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대부분 자연법칙 하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말 그대로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외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자연법칙과 창조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깨고 일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일생의 한두 번 정도 기적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창조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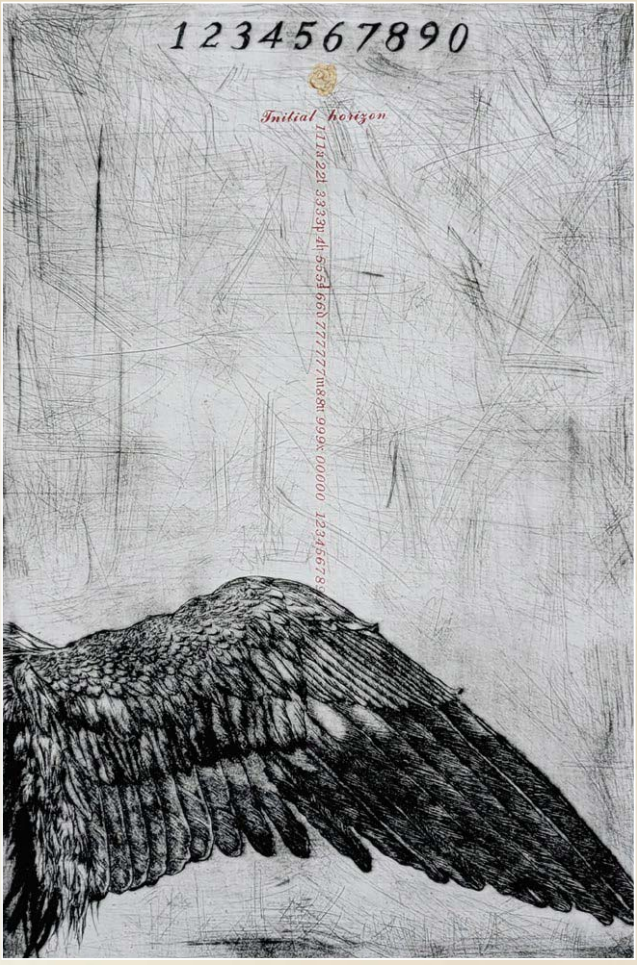
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좋은 값을 받고 팔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값 받고 팔면 하나님께 선교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받아서 좋을지 몰라도, 내 집을 산 사람은 그만큼 더 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까? 다행히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니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일에 관련된 사람 모두 기뻐하고 감사할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George Muller)는 "기도는 주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계획이나 생각을 끝까지 성취하려는 것은 인간이 지닌 본성이라 하지만, 기도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주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진정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영락교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시작'



Drawing1108 | 이순희 집사 作, 26.3×38.8cm, 드라이포인트(판화), 2011년

봄 하늘이 맑게 열리며,
부활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로의 비상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영혼을 희망찬 새 생명으로 이끌며,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그림자를 넘어
부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힘을
이번 부활절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도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 향한 소망

절제, 경건의 삶… 수도사 같던 선친

목사님이셨던 저의 선친은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경건한 삶을 사셨던 아버지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셔서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목회자이자 학자로 사셨지만, 아들인 저의 눈에는 수도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 치 어김이 없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내면에 늘 유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말을 절제하시며 침묵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 '조크'를 좋아하던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 재미있고 가벼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한다. 말수를 줄여라" 하셨습니다.

병상 중 "천당 다녀왔다" 영적체험 고백

아버지께서는 일 년여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줄곧 아버지 곁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후, 서울에서 사역하게 되어 철이 든 이후에는 아버지께 효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께 효도할 시간을 주시려고 아버지를 병상에 계시게 하셨다"라고 한국기독공보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동안 틈만 나면 아버지께 달려가서 함께 얘기하고, 밥도 먹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잠도 한방에서 잤습니다.

늘 경건한 삶을 사시는 아버지께서 책을 펴지 못하고 붓을 놓으시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 경험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천당에 갔다 왔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궁금한 마음에 "아버지, 천당이 어떻습디까?"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너무 좋더라"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건 저도 성경을 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습디까?" 아버지께서는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천당에 가서 누굴 보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뒷모습을 봤다"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디까?" "척 보니까 알겠더라" 하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를 앞모습을 보든, 뒷모습을 보든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예수님은 보셨습니까?" "못 봤다" "에이, 아버지, 딴 데 갔다 오셨네요" 제 말에 아버지께서는 씩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성희 원로목사
연동교회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내가 천당에 갔다 왔다는 말을 하지 마라.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내가 죽거든 그때는 말해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병상에서 아버지와 저는 늘 쾌활한 대화가 오가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죽음, 인간이 넘어야 할 마지막 큰 산

얼마 후에 다시 아버지의 병상을 찾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시 "내가 또 천당에 갔다 왔다" 하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들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천당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여섯 번 하셨다고 꼼꼼히 날짜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천당에 갔다 왔다는 말씀이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실 날이 다가오는가 보다'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좋은 데 가시렵니까?" 물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 갈란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가시렵니까?"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너희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당에 가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홀로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픔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힘들게 넘어야 할 마지막 큰 산입니다.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 그건 부활 아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서른다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른다섯 가지 가운데 아홉 가지는 자연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

신 기적 등입니다. 자연기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만드신 분께서 "잔잔하라" 하시니 말씀으로 창조된 바람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스물여섯 가지는 치유기적입니다. 치유기적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치유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치유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세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

다. 왜냐하면 살아났어도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처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으니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나 또 죽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또 죽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나사로는 너무 실망스러워 두 번째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의 결과인 인간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

어떤 이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뜻하는 것은 이후의 우리는 모두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된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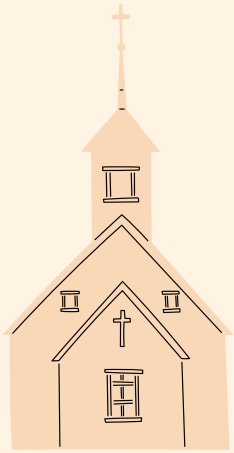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다시 살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올 부활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소녀였던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하여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청년이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얼마 후 장례 행렬 중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여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장년이었던 나사로는 죽은 후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여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어린 소녀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나 훗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이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금방 죽었든, 조금 지났든, 썩어 냄새가 나든 다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믿기에… 영원한 만남의 기쁨 기다릴 수 있어

기독교 역사의 삼대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Emanuel Swedenborg),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그리고 선다 싱(Sundar Singh)입니다. 스베덴보리는 당대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과 쌍벽을 이루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계를 체험한 다음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27년 동안 영계를 왕래하며 천국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소명 받은 사명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 밝은 나라에서 살고 있더라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장애인도 없이 모두가 꽃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스무 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젊은이로 그곳에 계실 것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이 나라에서 잠시 천국을 경험하셨다 하셨고, 지금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선친께서는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셨지만, 이 땅에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가시는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훗날의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의 아쉬움이 아니라 만남의 기쁨을 기대하는 벅찬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한 생명신앙입니다. 만남

그리스의 부활절 10주 전부터 영적 훈련



지난해 여름, 근무지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해 아침을 맞으니 가까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스에는 동네마다 교회(정교회)가 있어 어디서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듣던 어릴 적 교회 종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아득해진 지 오래인데, 그리스에 와서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비잔틴의 승계국… 인구의 80%가 정교회 신자

그리스는 인구의 80%가 정교회 신자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가톨릭 인구가 1%, 개신교 등 여타 기독교가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3조에도 동방정교회가 그리스에서 가장 널리 지켜지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을 허락 없이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대주교의 기도와 성서낭독에 맞추어 취임 선서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는 동방정교회 총본산이었던 비잔틴제국을 승계한 국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절기를 따라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임주성 안수집사
서초교구
주 그리스 대사

그리스인들의 부활절 여정… 올해는 4월 20일

부활절은 그리스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일이자 성스러운 날입니다. 성탄절은 집을 크리스마스트리와 전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폭죽을 터트리는 일에 집중한다면, 부활절은 사순절 이전 준비 기간,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 대략 세 기간으로 나누어 모두 10주 동안 갖가지 행사와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양한 훈련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부활절은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부활절과 날짜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인들의 부활절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교회의 부활절은 한국 기독교나 가톨릭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대체로 한 주 늦는 경우가 많으나, 2025년에는 세 기독교의 부활절이 모두 같은 날인 4월 20일입니다.

사순절 전 3주간은 고기 즐기며 '카니발'

그리스인들은 부활절 10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사순절

의 시작인 '성결한 월요일' 직전까지 3주간, 주말이면 고기도 실컷 먹고, 갖가지 복장으로 행진하면서 흥겹게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축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연기 나는 목요일'은 온 국민이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인데, 정육점과 고기를 구워 파는 식당이 매우 붐비며 전국이 고기 굽는 일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렇게 흥겹게 고기를 먹으며 보내는 이유는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중엔 고기 금식… 고난주간엔 올리브유도 안 먹어

사순절은 성금요일을 기준으로 47일 전 '성결한 월요일'에 시작해 40일간 진행됩니다. '성결한 월요일'은 공휴일이고, 거의 모든 정교인이 '라가나'라고 부르는 무교병과 해산물만 먹습니다. 고기와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은 정교인은 사순절과 이어지는 고난주간 내내 고기와 유제품을 금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성결한 월요일'과 마지막 고난주간만이라도 고기 및 유제품 금식을 하려 합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 해도 해산물 등 다른 것은 먹을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겠다 싶지만, 그리스인들은 거의 매일 양구이와 '수블라키'라고 부르는 꼬치구이, 페타 치즈, 그리고 그릭 요구르트를 먹기 때문에 이 금식이 매우 힘든 모양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은 이렇게 금식하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그리스인들의 생명과 같은 올리브유조차 금식합니다.

당일엔 추레키와 양고기 곁들이며 부활 찬미

드디어 부활절이 되면, 예배드린 후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버터, 우유, 그리고 효모를 넣어 만든 부활절 빵 '추레키'와 고기(특히 양고기)를 먹으며 함께 부활을 기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흐리스토 아네스티)" 인사를 건네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알리소스 아네스티)" 화답합니다. 삶은 달걀을 서로 부딪쳐 깨트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달걀 껍데기를 깨트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살다 보면 사순절 이전 실컷 먹는 시기,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금식, 그리고 부활절 축제와 같이 부활절의 모든 것이 금식과 축제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절의 전통을 단지 민족의 명절로 여기며 관광 상품화한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들의 의미보다는 먹고, 금식하고, 축제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선 매주 주제 정해 예수님 기리며 예배

그러나 동네마다 위치한 교회에서는 신실한 이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전체 10주의 부활절 기간 동안 매주 주제를 정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주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 낮아짐을 배우고, 회개를 통해 사순절로 들어가는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주는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주는 최후의 심판, 네 번째 주는 천국을 기대하고 용서를 구하는 주입니다. 다섯 번째 주부터 아홉 번째 주까지는 정교회의 성자와 전통을 기념합니다. 열 번째 주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자정엔 촛불예배… 온 마을이 폭죽 팡팡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전 토요일 밤 자정 전부터 시작하여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교회에 모일 때 각자 집에서 초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정이 되면 모두 초에 불을 붙입니다. 매년 그리스 정부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정교회에 가서 대주교에게 불을 받아 특별기로 아테네에 토요일에 도착하면, 이 불을 전국의 모든 교회에 보내 자정 예배에 촛불을 밝힙니다.

자정에는 온 마을이 폭죽을 터뜨려 부활을 알리는데, 그리스를 포함하여 비잔틴제국이 오토만에 점령당해 무슬림 치하에 있었던 4백여 년간 기독교가 살아있음을 오토만제국에 알리는 뜻으로 터뜨려 온 것이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초를 들고 집으로 가서 문에 초로 십자가를 그리고 집에 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스에서 사순절 기간에 벽에 붙여놓는 '소녀가 맞는 사순절(키라 사라코스티)' 그림이다. 입이 없는 것은 금식, 손을 모은 것은 기도를 나타낸다. 다리가 일곱 개인 것은 '성결한 월요일'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총 일곱 번의 토요일이 있는데, 매주 하나씩 떼어내면서 부활을 기다린다. 마지막 다리는 추레키를 만들 때 넣는다고 한다.

그리스의 부활절은 지키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결단이요 회개와 기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처에서 부활을 맞을 영락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만남

'회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3~24)

Miserere mei, Deus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2025년도 부활절 음악회를 갈릴리찬양대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갈릴리찬양대가 목소리를 모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찬양 통해 다윗처럼 참회하게

저희가 범한 죄악들을 생각하며,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책망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참회의 시편(51편)'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 시편을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1582~1652)를 통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Miserere mei, Deus(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갈릴리찬양대가 오랜 기간 다윗의 회개를 곱씹으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음악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죄악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조성환 장로
성동·광진교구
갈릴리찬양대 지휘

부활하신 예수께 영광 돌리는 '성소'도 준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한국의 성도들에게 많은 찬양곡으로 은혜를 끼친 조셉 마틴(Joseph Martin, 1959~)의 작품 '성소'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기억, 골고다 언덕에서의 기도, 예루살렘성 입성, 고난, 부활의 음악을 노래할 때, 함께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귀로 들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주최 | 영락교회 음악부 주관 | 갈릴리찬양대
2025 부활절 음악예배
회개, 그리고 구원의 은총
장소 영락교회 베다니홀
일시 2025.4.20.(일) 5:00 PM
Miserere mei, Deus (Gregorio Allegri) 성소 (조셉 마틴)
지휘 조성환 오르간 김우경
오케스트라 알테무지크 서울 (악장 한혜리) Sop Solo 김제니 Ten Solo 윤찬영
Solo Group 안유진, 김하영, 강지혜, 심성민 Narr 류주현 아나운서

나의 부활절 이야기

중학교 때 계란 바구니로 시작된 부활절의 추억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절에 얽힌 추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에게 부활절의 의미는 미션스쿨이었던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전체 학급별로 준비하여 운동장에 전시한 계란바구니 콘테스트에서 선생님들께서 계란 바구니를 심사하셨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보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던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성인이 되어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휴가를 내고 하기선교봉사를 떠났다. 봉사 떠나기 전 한 달여 동안 퇴근 후 매일 밤 모여, 하기선교봉사를 앞두고 한 팀으로 만난 형제자매들과 늦은 시간까지 즐겁게 준비했던 일들도 생각난다. 당시는 젊어서일 수도 있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활동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문산 지역 일대의 교회로 하기선교봉사를 떠난 적이 있다. 여름성경학교, 전도팀 등으로 나뉘어 섬기던 일정 가운데, 십자가행진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둠이 짙어지는 밤, 등불 켜진 골목 어귀에서 행진을 시작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끌려가시는 뒤를 따라가는 마리아와 여인들 중에 한 역할을 맡았다.

십자가 지신 채 조롱과 멸시, 채찍을 맞으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그 상황에 동화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며불며 뒤따르는 마리아!

절대로 예수님을 저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그러한 예수님을 뒤따르는 마을주민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정은미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 회계

그렇게 십자가 행진을 끝내고 퉁퉁 부은 얼굴로 팀원들과 마음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일어서는 나에게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형제가 "자매님이 하도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이 벗겨질까 봐 십자가 지랴, 옷 붙잡으랴 힘들었어요"라고 에피소드를 얘기해서 미안했던 기억에 피식 미소가 번진다.

청소년 시절은 물론,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일련의 모든 기억은, 50 중반을 넘겨 제직부서인 선교부에서 회계로 섬기는 지금도 추억 부자가 되어 버팀목이 되기도 하며,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계란 스타일링 통해 부활 예수님 기념하죠

선교부에서는 매년 부활절 기념하여 스타일링한 계란을 선교부의 모든 분에게 나누는 행사를 한다. 두 해 전에는 선교부 담당 목사님의 섬김으로 보자기에 계란을 싸서 선교부 임원 한 분 한 분께 드렸고, 작년에는 한 집사님의 섬김으로 황금계란을 만들어 기념했다.

올해는 어떻게 기념할지 고심하고 있다. 80주년인 올해는 더 의미 깊고 비상하게 준비해볼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행사도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스타일링하여 함께하는 분들과 계란을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로 정리해본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

곧 다가올 선교부의 부활절이 궁금하시면 들러주세요~ 만남

삶의 자리에서 한경직 톺아보세요

<차근차근 살펴보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5주년 추모행사 풍성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사무총장 차영균 장로)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평생을 민족과 교회를 섬긴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다양한 사업을 통해 21세기 한국교회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올해도 다양한 전문 사역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축복의 통로 작품전, 기증자료 전시회(4월 13일~5월 11일)

한경직 목사 추모 25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기념주간에는 '축복의 통로' 주제 아래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담당하는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 작품 중에는 교회 본당에 교체할 스테인드글라스 샘플 일부도 포함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영락교회와 교인들에게 축복의 통로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관련원고: 26쪽)**

또한 기증자료 전시회에서는 자료에 숨겨진 한경직 목사님과 기증자의 스토리를 통해 기증자료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

제2회 '한경직 상' 해외 부문 시상식 및 수상자 초청

2021년 월드비전의 공동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님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한경직 상'은 한국월드비전이 주최하고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상'은 월드비전 국제본부 총회에 맞추어 3년 주기로 열리며, 지난 2022년 첫 수상자를 선정 및 시상한 이래, 2025년 제2회 수상자 선정과 11월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4월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에 제2회 수상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3

삶의 현장에서 '한경직 톺아보기' 캠프 신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와 신학 교육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이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체험현장을 제공하는 '한경직 복음학교 캠

프'를 신설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경직 복음학교'와 연계한 현장 학습으로 직접 한경직 목사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따라가며 체험하고, 참여자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관련원고: 28쪽)**

4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업무 협약

본 사업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연구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업무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 계획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 제작'과 '2025 북적북적 프로젝트'를 계획·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정기총회 국내외 학생 16명에 장학증서 수여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제44회 정기총회가 2월 26일(수) 1부 수요예배 후 선교관에서 회원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사장 김운성 위임목사의 인도와 말씀, 이사 김종태 장로의 기도로 1부 경건회를 마치고 2부 회무처리로 24년 회계 및 사업보고, 2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거행된 2025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국내외 장학생 총 16명 중 국내장학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장신대 신대원 3학년 이우주 학생**(사진)**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해외장학생으로 선발된 토론토대학 이재민, 독일 본 대학 정한나 학생은 영상으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장학생 16명 중 13명은 한경직목사기념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장신대 및 자유인, 숭실대 외 학생이고, 3명은 영락여성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여성 신학생이다.

생기를 불어넣다

광야에 서다

아침묵상1

한 목사님을 기리며…'축복의 통로'展

4월 13일부터 유리작품·스테인드글라스 샘플전

올해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별세하신 지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맑은 축복의 통로였던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축복의 통로' 주제로 20여 점의 유리 작품을 전시합니다. 아울러 본당 일부 창문에 붙어 있던 낡은 시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샘플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고, 그의 신앙적 가르침이 여전히 빛이 되어 흐르고 있음을 유리 작품을 통해 나누는 자리입니다.

최진희 권사
서초교구
영락미술인선교회 고문

본당 볼 때마다 한목사님과 함께 섬긴 선친 생각나

초창기 성도들이 직접 돌을 한 장씩 나르며 쌓아 올린 건축물인 본당 성전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대표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이북 신의주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 남하해서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본당 1층과 2층에는 1975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드글라스를 아름답게 설치했지만, 동문 입구 아치형 창문 등 일부 창문에는 당시 재원 부족으로 비닐 시트지가 붙어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저의 은사이기도 하신 김정자 은퇴권사님도 유리 작업을 하는 저에게 "어떻게든 해보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 또한 교회 창문에 붙어 있는 비닐 시트지가 낡아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에 부착된 시트지를 제거하고 '아침 묵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다

상'이라는 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새벽빛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나무로 표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성전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담아내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유리는 신앙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캔버스

제게 유리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캔버스입니다. 처음 유리를 접했을 때, 그 특유의 투명성과 빛을 머금는 특성이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로 유리판 위에 유릿가루로 만든 에나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여러 장을 겹쳐 가마에서 굽거나 석고로 틀을 만들어 유리를 넣어 녹여 작품을 완성합니다. 여러 겹을 쌓아 공간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유리는 화면에 직접 빛을 머금어 기존의 다른 재료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과 효과를 선사합니다. 투명한 유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빛을 통과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이 아닌, 빛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최적의 재료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반면, 유리의 예민한 특성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떠올리게도 했습니다.

제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임하시길…

'광야에 서다'라는 작품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고단한 모습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에 서 보니 비로소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석고로 몰드를 떠서 유리를 넣고 두껍게 캐스팅한 후, 한 사람씩 배치하여 표현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다' 시리즈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순간을 떠올리며 만든 작품입니다. 블로잉(blowing) 기법을 사용하여, 숨을 불어넣을 때 부풀어 오르는 유리의 특성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또한 'Redeemed Water(마라의 쓴물)'는 광야에서 마주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슬픔과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쓴물처럼 가득했던 제 마음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단물로 변화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광야는 힘겨운 여정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서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유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지만, 제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밝음, 진리의 빛이 비치는 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그리스도인의 삶 분명한 답 찾아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거처하시던 남한산성 우거처

진정한 쉼과 신앙성장 경험한 한경직 캠프

한 사람의 삶이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빼앗긴 시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한경직 목사님. 그분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한경직 복음학교의 모든 시간은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은 것처럼 지난 2월, 고민이 많았던 저도 한경직 복음학교와 캠프에서 쉼을 얻었으며 신앙이 성장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한경직 목사님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한경직 복음학교 기간에 매일 묵상과 나눔을 하고, 강의를 들으며 복음을 더욱 풍성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숙 성도
강동·송파교구

'목회자·복지가·교육자·청지기 한경직' 만나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는 '오직 복음'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지나며 모두가 자신을 돌보기도 힘겨운 와중에도, 한경직 목사님은 일평생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번 1박 2일간 한경직 캠프에서는 이런 한경직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평생을 바쳐 목회하셨던 영락교회 곳곳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며 한경직 목사님의 사택 및 전시실을 탐방하면서 '목회자 한경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한경직'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세상에서는 당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영락주간보호센터와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영락애니아의 집, 하나님이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는 영락보린원을 탐방하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복지가 한경직'을 만났습니다.

또한 숭실대학교의 한경직기념관과 한국기독교박물관을 탐방하여 서울숭실대학교 초대학장으로서 숭실대학 재건에 힘쓰셨으며, 다음세대 교육에 힘쓰신 '교육자 한경직'을 만났습니다. '교육자 한경직'은 항상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내가 당대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먼저 씨를 뿌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수련원과 우거처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않으시고,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한경직'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 후 27년 동안 기거하셨던 우거처에서 만난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한경직 캠프는 단순히 귀로 듣는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직접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따라 보고 걷는 순례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섬김, 봉사로 하나 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에서 참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복음학교와 캠프를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 43:1)

한경직 목사님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경직 복음학교를 수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42:2) 만남

"잘하였소" 선한 음성 목사님 그립습니다

사무처장으로 매일 모시던 분… 25년 훌쩍

2000년 4월 19일 오후 1시 15분경 사무처장실 전화벨이 울려 수화기를 드니 백운경 장로가 다급하게 빨리 오라고 한다. 급히 한경직목사기념관으로 갔더니 백병원 의사가 방문을 나서며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것이다. 남한산성 사택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급성폐렴으로 아산중앙병원에 입원하신 것이 1999년 12월 31일이었다. 한 달 반 치료 후 2월 14일 퇴원할 때 사택이 너무 추워서 교회 내 한경직목사기념관에 임시 거처를 만들고 목사님을 모셔 왔다. 당시 내가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었기에 매일 수시로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벌써 25년이 흘렀다.

60여년 전 대학생 때 처음 뵌 날 일기장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는 1963년 8월 4일에 대학 친구를 따라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처음 뵈었다.

한진유 은퇴장로
중구·용산교구

그날 설교는 '환난의 날과 기도'였는데 친구는 성가대석에 있고 나 혼자 예배드렸다. '처음 간 것 같지 않고 오래전부터 다니던 곳에 다녀온 기분이고, 목사님이 내가 온 것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다'라고 그날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계속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영락교회에 왔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목사님의 인상이 집안 어른같이 친근하고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래전부터 다닌 것처럼 혼자 잘 다녔다. 그 후 세례도 받고 결혼 주례도 목사님이 해 주셨다.

'예수·나라·이웃사랑'이 몸에 밴 분

군대 제대 후 취직한 회사가 주식회사 '대농'이었는데, 회사 사무실이 영락교회 남문 앞에 있는 조양빌딩에 있었다. 마침 회사 박용학 사장님 가족이 영락교회 교인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많이 도와드리는 분들이었고, 그 부인 김영도 권사님은 한경직 목사님과 방인숙 전도사님을 도와 군인교회 건축 및 군복음화 사업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었다. 동양에서 제일 큰 방직공장을 청주에

세울 때 공장 구내에 대농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직원을 전도할 수 있었다.

내가 대농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던 1970년대 초, 싱가포르 하가이 전도집회에 강사로 오가시던 목사님이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 홍콩 비행장에서 한두 시간 머무실 때 몇 번 차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싱가포르로 직접 가는 항공편이 없었다.

1982년부터 영락원(영락사회복지재단 전신) 감사가 되고, 이사가 되어 12년간 목사님과 함께 회의한 적도 있고 보린원, 경로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을 동반하며 점점 더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또 1996년에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가 된 후에는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생각이나 몸가짐, 그리고 사람 대하는 태도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목사님은 정말 설교 말씀과 실제 생활하시는 모습이 항상 일치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 몸에 밴 분이었다.

목사님은 청주 대농교회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해주셨고, 후에 미도파가 노원구에 큰 백화점을 세우고 오픈할 때도 임영수 목사님과 같이 오셔서 다목적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축도해주셨다. 어떤 날은 지나는 길에 백화점에 들르셔서 COCOS 식당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잡수신 일도 있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와 역사자료실에는 연대별로 정리된 목사님 사진이 약 4,500장 있다. 나는 2~3년 전부터 최근까지 시간을 내어 그 사진들의 촬영일자 및 제목을 정리했다. 컴퓨터 모니터에 사진 화면을 띄우고 돋보기로 살피는 등 교회 자료에서 날짜와 사진 설명을 대조하며 기록하는 일은 마치 목사님과 함께 그 때로 돌아가게 한 것 같아서 참 감회 깊었다.

아이들 참 좋아하시고 겸손·온유의 삶 사신 분

목사님은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셨다.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에게도 언제나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손길, 정다운 미소로 대해 주신,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셨다. 주위를 돌아볼 때 목사님 같은 교회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나도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보려고 해도 목사님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 얼마 후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을 뵈올 것인데 그때 "잘했소"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만남

보린원에서 성탄예배를 마치고. 왼쪽부터 김덕윤 은퇴권사(사회복지재단 이사), 한경직 목사님, 필자(사회복지재단 이사), 김상익 장로(보린원장)

1

2

M국에서 이뤄가시는 복음 사역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지금도 M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님의 삶에서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만남』을 빌어 우리 M국의 교회가 걸어온 길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음사역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황관중 선교사
M국

코로나·쿠데타에도 150여 명 예배 교회로 성장

2018년에 개척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저소득층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양곤 남쪽 다곤세이깐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주변 빈민가 아이들과 어른이 적은 수로 모였지만, 지금은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15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사진1, 2)**

코로나19 팬데믹과 군부 쿠데타로 인해 다른 사역들은 대부분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는 놀라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예배 공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졌기에 더 넓은 예배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선교부와 의논한 끝에, 2015년에 매입했던 작은 규모의 청년 센터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M국 선교를 위해 심은 작은 씨앗이었던 청년 센터는 이제 M국 선교를 위한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24년 9월에 시작한 교회 건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오는 5월 7일 헌당예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사진3)**

돌이켜보면 교회 건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안한 M국 정세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고, 국경 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시멘트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축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전도사님이 부적절한 일로 사임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부의 강제 징집 발표로 인해 많은 청년이 지방으로 피신하면서 교회 청년 사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불모의 나라서 목격한 하나님의 계획

M국은 교회 등록이 불가능하고, 십자가조차 내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3

우리 교회도 그리하시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한 지역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지역 교회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청년 양육과 NGO 사역, 선교 훈련 등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영락교회의 M국 선교'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은혜복음교회라는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곳이 될 것입니다.

M국 선교 거점 되도록 기도와 후원 절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M국 선교의 거점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에 이 땅에 세워지는 M국 교회가 영락교회처럼 80년, 90년, 100년을 넘어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퍼야 떠킨 까웅치 뻬이바제(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안남

글로벌 영락한글문화교실(몽골)에서는 지난 1월 7~15일 K-컬처 체험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코엑스를 방문한 몽골 중학생들.

주님과 교제하는 게르 몽골어예배팀

샬롬! 저는 올해부터 선교부 유학생 선교파트 몽골어예배팀을 섬기게 된 전도사 통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부르시고, 몽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오는 열방 사람들… 선교 패러다임 바뀌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2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에 달하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몽골인은 약 5만 명, 몽골 유학생은 1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지성인으로 인정받으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타국에서 유학생활하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월세, 교통비 등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해야 하는 고된 현실 속에서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갈급해지는 시기가 바로 유학 시절입니다. 이때,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간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살아오며 그 어려움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몽골 유학생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실한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통가락 전도사
몽골어예배팀

주일 오후 3시 봉사관 501호에서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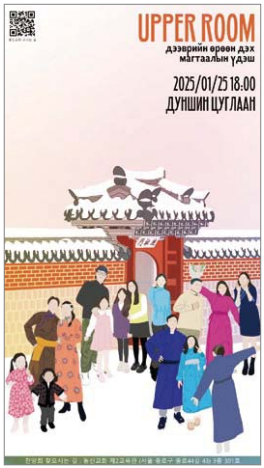
몽골어예배팀은 2007년 즈음 영락교회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그들은 몽골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유학생들로 구성된 몽골어예배팀은 매주 주일 오후 3시, 봉사관 501호에서 몽골어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교제에 머물지 않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학업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많은 유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한 학생은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주일은 예배드려야 하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고용주와 약속을 맺어 지금까지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유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몽골 어예배팀 성도가 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엔 UPPER ROOM(다락방 찬양의 밤)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UPPER ROOM'은 몽골어예배팀 청년들이 주도하는 찬양과 기도 모임입니다. 영락교회와 동신교회의 몽골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의 모임을 통해 4개 교회에서 약 30명의 몽골 청년이 모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짝수 달은 영락교회에서, 홀수 달은 동신교회(종로구 창신동 소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3월 29일(토요일)에는 다섯 번째 찬양의 밤이 동신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글로벌 영락 한글문화교실에선 몽골 중학생들 초청

선교사 사역지의 청소년을 한국으로 단기 초청하여 한글과 문화 및 영성을 접하게 함으로써 K-문화를 동경하는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선교사의 전도사역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된 글로벌 영락 한글문화교실은 첫 행사로 지난 1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국제대학교 부속 MIU 중학교 학생 25명을 초청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성 교육(채플), 한글 교육, K-댄스 등의 교육 및 명소 탐방이 있었습니다.

몽골 법률상 교육기관에서는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영락 한글문화교실은 한국 방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라는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지만,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점차 마음이 열려 주일예배도 드리고 9일간 연습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영어 버전인 'Amazing Grace'를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수료식 때는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전하며, 교사들을 몽골로 초대하는 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몽골어예배팀이 몽골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서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열도선교 꿈꾸는 일본어성경반

지난해 10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소다 가이치 선생을 추모. 고인은 한국 고아를 위해 평생을 바치시다 영락보린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기독교 불모지 일본… 전체 인구 중 0.7%만 신자

일본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한반도보다 몇백 년 앞선 1549년이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독교 박해에 따라 존립이 힘들 정도로 거의 말살되었습니다. 1873년에 금교령이 철폐된 후 다시 복음의 싹이 텄지만, 현재 가톨릭을 포함해도 전체 인구의 0.7%밖에 안 되는 일본 기독교 신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토대가 메말라가는 일본에 복음을 전하려면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일본어 성경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 안에 일본어 성경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일본어 성경반은 일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앙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선교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제자양육훈련부의 외국어 성경공부 프로그램 중 3개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일본어성경반 섬김제자
홍보출판부

1982년 출범… 요시다 목사의 代 이은 십자가 사역

영락교회 일본어성경반은 박인재 장로님(작고)이 중심이 되어 영락교회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요시다 고조(吉田耕三) 목사님과 더불어 1982년에 출범했습니다. 성경 구절 중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를 가장 좋아하시는 요시다 목사님은 그 이웃이 바로 대한민국임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981년 한국으로 온 가족과 함께 이주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과거 1974년 첫 방한 때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가 영락교회였기에, 그때 맺은 인연이 이어져 마침내 일본어 성경반이 탄생한 것입니다. 무려 42년간의 반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지내시며 일본어 성경반을 이끄신 목사님은 작년 3월에 은퇴하셨습니다. 이후 2024년부터 히라시마 노조미(平島望) 목사님과 히라시마 노리코(平島範子) 선교사 부부가 일본어 성경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노리코 선교사는 요시다 목사님의 따님이니, 대를 이어 한국 땅에서 사랑의 십자가 사역을 하는 셈입니다.

일본 선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3개 과정

현재 일본어 성경반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음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어성경 A반(주일 12:50~13:40, 봉사관 504호, 히라시마 노리코 전도사, 섬김제자 김태암 집사) : 일본어성경 A반은 일본어 성경을 중심으로 경건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초심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어와 한국어가 병용됩니다.

세 반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가 깊은 일본어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매주 주제가 바뀌는 5분간의 원 포인트 레슨 시간도 유익합니다.

일본어성경 B반(주일 14:00~16:00, 50주년기념관 8층 eRoom홀, 강사 강창건 집사, 섬김제자 민병삼 집사) : 일본어성경 B반은 일본어 성경 공부와 함께 시사,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자율적 스터디그룹 형태로 진행합니다. A반 참가 후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으며, 중급 이상의 일본어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B반은 일본 Kansai 지역을 순례하고 왔는데, 향후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Tokyo 지역도 답사할 예정입니다.

3040 일본어 기독문화반(주일 11:00~12:00, 50주년기념관 8층 eRoom 2호실, 강사 히라시마 노리코 전도사, 섬김제자 유승헌 집사) : 3040 일본어 기독문화반은 미래를 이끌어 갈 3040 세대를 위한 반으로 일본 기독교와 문화, 일본어 찬송가,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는 일본 동화 등을 공부합니다. 이 반은 젊은 층을 위한 모임으로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있는 젊은이를 모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학 실력의 수준이 각자 다르므로 금년에는 일본어 초보자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호응이 좋다면 과거에 인기 있었던 일본 비전 트립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향후 일본 선교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본어성경 B반 회원들이 간사이 지역을 답사하고 왔다.

위 세 반의 공통 온라인 활동으로, 단체카톡방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매일 올립니다. 부가 내용으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상호 비교된 독학용 공부 자료인데, 매일 이것만 공부해도 상당한 학습이 된답니다.

일본어 성경의 장점은 한글 성경의 어떤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곳을 비교해 읽어보면 명쾌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25년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50주년기념관 지하1층에서 일본어성경반의 역사와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사진전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끝으로, 3월 9일부터 신학기 개강이 되었는데, 중간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공부 시간에 맞추어 찾아오셔서 섬김제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계시다면, 일본어성경반은 항상 열려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성경반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남

모세처럼… 믿음·용기·사랑 '레벨 업!'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 열려
출애굽기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배워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가 2월 22일(토)부터 23일(주일)까지 '약속의 땅으로 Level Up!'(출애굽기 3:10) 주제로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22일에는 500여 명의 아동부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200여 명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사, 70여 명의 학부모 봉사자가 연합하여 섬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믿음 레벨업' 주제로 진행된 오전 프로그램에서 아동부 어린이들은 오전 10시부터 베다니홀에서 신나는 찬양을 시작으로 이태성 장로(유년부장)의 기도, 유년부 신민아, 정원준 어린이의 성경 봉독, 아동부 교역자들이 준비한 '어느 버스기사의 이야기'라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 예배, 김운성 위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에는 셀러브레이션과 공동체 활동인 '투게더 믿음 챌린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식당에서는 아동부 학부모 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 주었다. 많은 인원 탓에 제1식당과 제2식당으로 나누어 식사하게 되었는데, 질서를 지켜 차례로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오후 프로그램은 '용기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2·3학년은 야외 프로그램으로 '영락 용기 어드벤처'가 진행되었다.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 설치된 여러 놀이기구(바이킹, 에어바운스, 타겟&농구 바운스, 말씀 맞추기 등)를 통해 모세처럼 용기를 얻는 '용기 레벨업' 프로그램이다. 흥미로웠던 점은 '용기 충전소'라는 곳을 통해 용기 팔찌 만들기, '용기 카드'를 소지해야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경 암송을 하는 곳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문화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페이스 페인팅도 진행되었다. 또 다른 그룹은 각 부서실로 들어가서 성경공부를 진행했다. 출애굽기 7~12장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주일에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랑 레벨업' 주제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트뽕뽕' 워터게임기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말씀에 접하는 시간이었다.

2025년 봄맞이 성경학교를 통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을 부르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길 소망한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여 Level Up! 하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해본다. 만남

신주현 목사
아동부(소년부)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온 길

이제 2년 차 집사인 영락교회 청년회 서기집사 임세진입니다. 저는 청년부(현 청년회) 부서 '주는나무'의 조원으로 시작하여 부총대(부지기)와 리더로 섬기면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청년부에서는 성숙한 신앙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는 신앙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에 나이 제한이 생기면서 형, 누나들이 많이 떠나고,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청년공동체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중단된 어려운 시기인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12명의 청년이 다시 만났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 속에서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며 모임의 회복을 바라는 가운데, 점점 청년회에 익숙한 청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세가 되어 청년선교회로 갈 준비를 할 찰나에 후배들이 1년만 더 리더로 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1년 동안 섬기면서, 조원들과 많은 시간 함께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임세진 집사
청년회 서기

헌신과 섬김을 배운 의료선교부

청년회 하기봉사 참여를 계기로 청년의료선교팀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선교부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2023년 캄보디아 포이펫 단기해외의료선교를 가게 되면서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 특히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섬기시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선교하는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며 젊은 세대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바탐 해외의료선교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문화사역 부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선교는 진승학원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집사 청원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

청년회를 섬기면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IT미디어부 디자인팀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며, '도대체 집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불리는 것일까?' 하는 와중에 집사 청원을 하여, 교육을 통해 집사의 의미를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행정 일을

1 2024 인도네시아 바탐 해외의료선교 문화사역팀과 사역을 마치고 진승학원 앞에서 현지어 배너('안녕 영락', '안녕 진승')를 들고 교장선생님(가운데)과 함께. 2 청년회 주는나무 '세진이와 함께하조'에서 조원들과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한 야유회.

하면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집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로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었고, 현재는 청년회 서기집사로 공동체에 더욱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선교회, 익숙하지만 새로운 공동체

청년회 졸업 후 청년선교회로 오면서 익숙한 사람들과 낯선 분위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청년선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회와 달리 방학과 개학이 있어 휴식과 정비의 시간이 주어지는 청년선교회는 조모임을 하며 신앙을 나누고, 예배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 친밀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원을 그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을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회 서기집사로 부르심… 더 섬기겠습니다

청년선교회에서 1년을 보내던 중 청년회 서기집사로 섬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되어 세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께 기도해보기를 권유받은 후, 그 주간의 수요기도회, 장신한마음기도회,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3040기도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청년들이 교회를 섬겨야 영락교회가 튼튼해진다"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2025년도 청년회 서기집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회, 청년선교회, 집사 직분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곤 했습니다. 앞으로 청년회 서기집사로 더욱 충실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광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필리핀서 하나님의 일 해보렴" 어머니의 권유

2006년 겨울방학,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긴장하며 바라보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언아,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지 않니?"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확신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저는 그곳에 가서 어떤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후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부모님께서는 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필리핀 선교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신 다음에 제 의중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정주언 전도사
서초교구
전도부

빈민촌서 하나님의 사랑 배우라는 깊은 뜻 깨달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필리핀으로 출발했습니다. 약 네 시간 지나 도착한 마닐라에서 선교사님을 만난 후, 차로 약 열 시간을 달려서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팡가시난주에 위치한 도시 다구판에서 더 들어간 어느 빈민촌이었습니다.

그곳 마을교회에서 구급약을 들고 다니는 등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게 하려는 부모님의 깊은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경험하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풍으로 폐허된 현장 "위로하라"신 주님 음성

함께 지내던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출타하셨어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2007년 여름, 예상치 못한 강한 태풍이 몰아쳐 지역이 황폐해졌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길도 사라진 황망함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은 현지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선교센터로 모여들었습니다. 태풍이 휩

쓸고 간 폐허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황폐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너진 대나무밭을 정리하여 구조대가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긴급한 물품을 나누며 치료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작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과 위로의 은혜 흐르는 곳

그때 이곳이 단순한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는 '광야학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제 신앙을 다듬으시고, 저를 더욱 강하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 점차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쉽게 드러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위로의 사역을 결단했음에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다시금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만났던 감동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신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위로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학교는 언제,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누군가는 깊은 상실 중에, 누군가는 기다림과 인내 중에, 또 누군가는 외로움 중에 각자의 광야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났어도 여전히 걷고 있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소그룹, 영적 성장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

재작년 가을 4부 예배 후 주보에서 반가운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소그룹을 오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주일 매우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쉬웠는데, 은혜받은 말씀으로 나눌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소그룹은 QT를 나누는 묵상 그룹, 기독교 서적을 읽고 나누는 독서 그룹, 일과 영성 소그룹, 기독교 세계관 소그룹, 하브루타 묵상 소그룹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그룹 나눔을 통해 피상적인 관계 형성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게 나누며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삶의 성장과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교회만 억지로 다니며 술과 담배를 그대로 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소그룹 나눔을 통해 어느덧 그것들을 모두 끊고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QT 등 개인 묵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내용을 소그룹에서 나누게 되면 개인의 성장이 있을 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말씀이 깊게 자리 잡게 되어 구성원 간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인상 깊은 소그룹 경험 중 하나는 '한경직 복음학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몇 주간 소그룹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날마다 메시지와 나눔,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며 복음 중심 생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일 말씀 소그룹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작했고, 선교관 제2식당에 모여 한 조에 6~7명씩 질문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영란 성도
강동·송파교구
홍보출판부

담당 목사님이 미리 준비해준 질문지로 서로 은혜를 나누니 머리에 막연하게 머물러 있던 설교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후 제자양육리더 모임을 통해 암송반이라는 소그룹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작년 11월 다니엘기도회 집회를 통해서 1,000구절 암송이라는 목표를 정해 혼자 암송하고 있었는데, 교회 내에 암송반이 있다는 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30에 온라인 줌(Zoom)으로 모여 교회의 매달 정해진 암송 구절에 더해 전도 시 필요한 구절이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 등을 암송하며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니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나도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QT모임'과 소그룹 인도자를 양성하는 '섬기는 제자로 살기'라는 소그룹도 알게 되었습니다.

'QT모임'은 독특한 QT묵상법을 통해 깊은 은혜와 서로에게 주신 통찰을 나눔으로써 지경이 훨씬 넓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섬기는 제자로 살기'반은 소그룹이 요구하는 훈련된 인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방법과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락의 많은 성도가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 **말씀 중심 소그룹** : 선교관 제2식당, 주일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암송반 소그룹** : 온라인 줌(Zoom), 화요일 오후 4시

▣ **QT소그룹** : 온라인 - 화요일 오후 4시,
대면 - 50주년기념관 704호

▣ **소그룹인도자 양성**(소그룹을 섬기는 제자로 살기반)
: 50주년기념관 704호

소그룹 활동엔 은퇴없죠

저는 안수집사와 제자양육부1차장이라는 직분에서 작년에 은퇴를 했지만, 오히려 요즘 소그룹에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그룹 인도 및 소그룹 인도자 양성을 위해 봉사해오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소그룹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체험한 간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섬기는 제자로 살기 반'이 작년 하반기에 개설되었다. 소그룹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자를 세워 그룹을 인도할 역량으로 양육하는 반이다. 소그룹을 인도할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소그룹에 참여하여 조원이나 조장으로 섬김으로써 다른 그룹을 인도하며, 또 다른 그룹으로 분화하도록 한다.

소그룹에 관한 성경 기록

-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26 상) 하시며 '우리'라는 말을 세 번이나 언급하셨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때때로 소수 그룹으로 훈련시키신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다.
-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사도바울이 디모데,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을 제자로 세울 때도 소수가 모여 나눔과 사역을 펼침으로써 유럽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놓았다. 이뿐 아니라 사도들이 가정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으로 믿는 무리도 점점 많아졌다.

김재을 은퇴안수집사
성동·광진교구

소그룹의 의미

- 3~4명이 모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요한

복음 8:31, 32).

- 소그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골로새서 3:16)한다. 즉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는 비전(골로새서 3:16~17. 마태복음 28:19~20)을 품은 모임이어야 한다.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전도서 12:13)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제자로 살아간다.

소그룹 목적

-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고린도전서 1:9)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삼백 년을 교제하며 동행하시다가 천국까지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연합으로 모여 사랑을 나누고 말씀의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오~선하구나" "참 아름답구나"(시편 133:1)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기뻐하신다.
-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큰 사역(베드로후서 1:20, 전도서 4:9~12)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힘들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디모데후서 2:15)하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소그룹의 방법

- 목회자가 소그룹을 이끌 인도자를 훈련하고 양육하여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사도행전 8:30~31).
- 소그룹을 이끌 인도자를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평생 훈련한다(마태복음 4:19, 데살로니가전서 2:7~8). 그 대상으로는 거듭난 성도로서 영적 부모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합당하다 하겠다.
- 거듭난 성도로서 영적 부모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그룹을 이끌 인도자로 세워 훈련한다(마태복음 4:19, 데살로니가전서 2:7~8).
- 부서, 직장인, 구역원 등 공통 관계를 맺어 동아리처럼 활동할 수 있으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 편차가 심하면 그룹 활성화가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수준을 강화하는 그룹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 활동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므로, 최근에 극동방송은 방송 중에도 소그룹 나눔을 송출하기 시작했고 여타 교회에서도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 교회는 위임목사님의 인도 아래 소그룹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자양육훈련부서 안에 소그룹전담부와 QT훈련반, 차세대반, 성경암송반, 필사반, 핵심필수과정을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소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시편 133:1)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소그룹에 참여하여 영성을 심화하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격려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만남

사랑은 아프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아픈 만큼, 흘린 눈물만큼 인생 깊고 넓어져

우리는 누구나 각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나 살아온 크기만큼, 시간의 길이만큼 상처가 있다. 그럼에도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아파도 눈물과 피와 땀이라는 물기를 품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한 애움길이 있는 낙낙한 풍경이 더 푸근하고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정겹다.

사랑은 아픔이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아픔과 고통, 슬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상처가 없으면 열매도 없다. 꽃은 상처를 이겨내고 피어난다. 아파하면 살아있는 것이다. 사랑의 어원은 심장이다. 사랑은 심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사랑은 상처 입을 용기를 가진 사람의 것이다. 아픔이 인생의 깊이와 너비를 넓혀준다.

김태영 장로
고양·파주교구
사랑부 부장

사람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가 있다. 그늘을 통과하지 못한 이야기는 감동이 없다.

십자가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잘 익은 상처에선 향기가 난다.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꿈이 된다.

고난을 통과하면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가 생긴다. 깊이는 연단에서 나온다. 고난을 통해 그릇을 만드신다. 고난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 간절함은 없던 길도 만들어 낸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는 간절함이다. 결핍은 간절함을 선용한다.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 네 몸과 마음에 너의 아픔이 있는가? 고난이 사람을 촘촘하게 만든다.

장애는 한계를 알려주고 하나님 섭리를 보게 해

우리는 살면서 여러 장애에 마주친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벽에 부딪힌다는 뜻이다. 육체는 노쇠하고, 지식은 제한적이고, 부와 명예도 한계가 있고, 즐거움도 끝이 있다. 마지막인 죽음의 한계를 우리는 넘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안에서 자기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지배권을 내려

2019년 장애인 주간에
사랑부가 공연한 연극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놓고 삶의 모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불행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계는 우리의 인간됨과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 섭리의 신비와 경이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내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선 긋기를 뛰어넘어 이기신 사건이다.

장애는 나의 한계를 보게 하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한계를 알아 허둥대지 않고 살게 해준다.

장애의 벽, 우리 '앞'이 아닌 '머릿속'에 있어

우리는 이런저런 꼬리표에 갇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장애의 기준을 '순수'나 '정직'으로 정한다면 누가 장애자인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장애의 벽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 이 모든 이름표의 껍데기를 벗겨, 유일인 인간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모두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다.

우리는 지나친 건강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아파도 행복할 권리, 장애가 있어도 존중받을 권리, 모습이 달라도 지원받을 권리의 질병권이 있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지만, 다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비하할 수 없다.

새날은 이웃의 신음이 들리는 날

"긍휼은 안아주는 것이다"라고 칼뱅은 말했다. 긍휼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다. 사랑은 '더'이다. 한 번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베푸는 마음이다. 내 곁을 내어주는 마음이다. 새날은 이제껏 안 보였던 이웃의 신음이 들리는 날이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빵은 본래 맛이 아닌 고마운 맛이다. 그 빵은 빵이 아니라 정신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야말로 주 안에서 참된 '나'를 찾는 길이다. 자기를 위해 남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에 빚진 자, 장애인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위로의 말은 천국의 모국어이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빚을 갚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이다. 장애인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참된 이해에 이르는 길은 이해하려는 대상이 되려는 마음과 노력이다. 이 시대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것은 곧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그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웃은 우리 빈틈을 통해 들어온다. 누군가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은 불쌍하다.

위로는 "같이 밥 먹자" 하며 손 내미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주님의 '같이'가 사랑이다. 내 곁에 앉게 해주는 것이 위로이다. 이 시대의 수준은 장애인들의 불행 정도, 탄식 정도, 한숨과 눈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을 향해 웃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슬픔과 아픔을 이긴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며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장애인을 변화시킨다. 차이를 다름으로 인식하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된다.

은혜, 즉 헤세드(chesed)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 연약함·질병 감당하신 주님처럼 사랑하자

교회 안의 약한 지체들은 강한 지체를 성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그때에 강함이 나타난다.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죄 많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이 주님을 만날 때,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된다. 주님은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역전을 이뤄주신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가파른 길의 끝 무렵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은 다소 슬프고 연약해 보인다. 베다니는 되살아난 나사로의 마을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시간, 예수의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만남

침침·뻑뻑… 눈 노화 오나봐요

안녕하세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노화와 눈 건강' 주제를 쉽게 이해하시도록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있었던 영락교회 건강세미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눈 질환(백내장, 녹내장, 연령 관련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폐쇄증, 안구건조증)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하는 우리 신체 변화 중 특히 눈 건강은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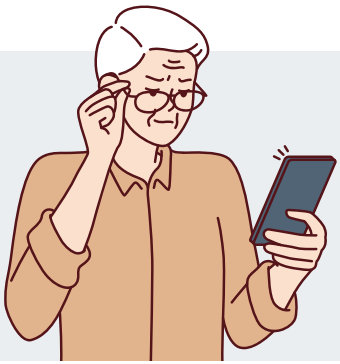
황덕진 교수
한길안과병원
가톨릭관동의대

백내장 :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꼭 착용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흐릿해지고, 빛이 퍼져 보이거나 색깔이 선명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노화 때문에 생기지만, 흡연, 음주, 자외선 노출, 당뇨병, 고혈압, 스테로이드 사용, 외상, 유전, 포도막염 같은 요인도 위험을 높입니다. 초기에는 안경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심해지면 흐려진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내장 : 초기증상 거의 없어 조기진단 필수

녹내장은 눈 속 압력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입



봄철 자외선 백내장 불러올 수도
고혈압, 고지혈 땐 망막혈관폐쇄증 조심

금연·절주하고 정기검진 필수
눈 이상 느껴지면 즉시 병원으로

니다. 시신경은 눈이 보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망가지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인의 70~80%가 안압이 정상인 정상안압녹내장이라는 점입니다. 중심부 시력은 나중까지도 보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하면 대부분 실명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흡연, 가족력, 근시, 여성, 혈액순환장애, 마른 체격 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과의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약물이나 수술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 : 나이 들며 황반 손상… 루테인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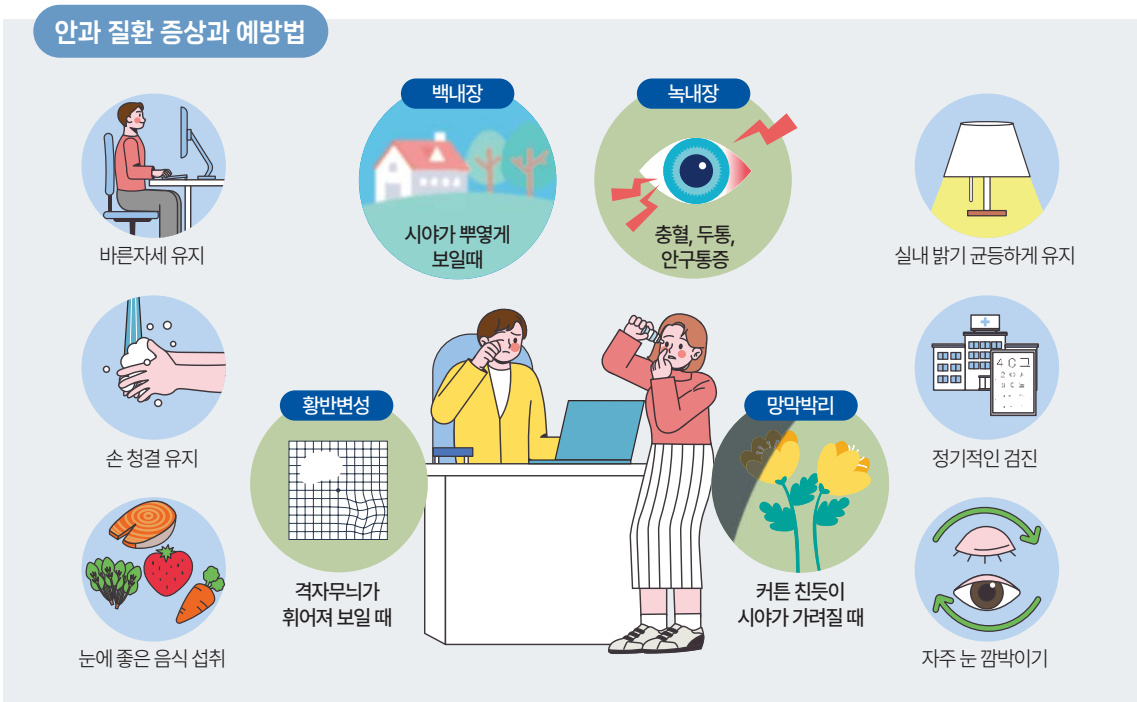
황반변성은 눈 뒤쪽 망막의 중심 부분인 황반이 나이 들며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글을 읽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볼 때 쓰이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시야 중앙이 흐릿해지거나 왜곡돼 보입니다. 나이,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자외선, 유전, 인종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에서는 루테인이 포함된 항산화제 복용을 권장하는데,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제 종류와 복용량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노른자, 당근, 호박, 고구마, 오렌지, 망고, 옥수수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당뇨망막병증 : 나이·고혈당·고혈압·가족력 등 위험인자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때문에 망막 혈관이 손상돼 생기는 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시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유병 기간), 흡연, 높은 혈당, 고혈압,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입니다. 증상으로는 시야에 검은 점이 떠다니거나 갑자기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망막혈관폐쇄증 : 갑자기 한쪽 눈 안 보이거나 흐릿

망막혈관폐쇄증은 망막으로 오고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혈류가 끊기는 질환입니다. '눈 중풍'이라고도 하지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 있는데, 마치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 흡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고지혈증, 대사



증후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졌는데,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에요. 혈관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며 안과 전문의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시력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 눈 따갑고 이물감 느껴져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마르면서 눈이 건조해지는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 생기기 쉬운데, 눈이 따갑고 뻑뻑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물층은 크게 점액층(눈 표면과 눈물을 결합함), 수성층(눈물막의 대부분), 지방층(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분비, 수성층을 감싸 눈물 증발을 막음)으로 이뤄집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층, 특히 수성층 부족으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수에서 눈꺼풀 마이봄샘의 염증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인공눈물 사용뿐 아니라 온찜질이나 항생제,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연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 눈을 자주 깜빡이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은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부분입니다. 나이 들며 생기는 이런 질환들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강의 내용을 총정리한 위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영락교회 모든 분이 밝고 건강한 눈으로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영락의 뜰에서 신앙의 길동무 소망

박동진 목사

샬롬, 2025년 서대문·은평교구, 영성, 영락수련원,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호산나찬양대를 섬기는 박동진 목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 현주영, 중학생이 된 첫째 수아, 초등학교 5학년인 쌍둥이 윤아·단아,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제게 있어 목회자로의 부르심은 급진적인 단회적 사건이면서도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급진적이라 함은 15세에 경험한 뜨거운 회심 체험, 군대 시절의 영적 체험, 대학생 때 경험한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인을 말합니다. 이 세 영적 사건은 제 목회 소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진적이라 함은 부모님의 영향을 말합니다. 자그마한 농촌교회를 담임하시던 중 소천하신 아버지와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숙고하던 중에 한 길, 목회 소명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 첫 전임 사역지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의 뜰에서 전임전도사와 부서목사로 섬기면서, 목회와 사역의 항구한 기본을 배우며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축복이요 특권이었습니다. 풀타임 사역의 시간을 뒤로하고 제게 주어진 다음 걸음은 유학의 길이었습니다. 이국땅 나그네 여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영성학 박사 과정을 잘 마치고, 다시 부름 받아 영락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온 영락의 뜰에서 받은 첫 은혜는 신년기도회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마음에 거룩한 타격을 주었고, 교역자 특송으로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날 예수의 길을 걷기 원하는 제 깊은 마음의 열망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겨울로 시작했던 25년 은총의 첫 시간들이 어느덧 봄날로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영락의 귀한 성도님과 길동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감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남은 한 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따르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남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작품명 : 생명의 떡(요한6)
제작 연도 : 2024
재료 : 백자와 도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요한복음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6장의 말씀 중 영감을 준 것은 오병이어의 축복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셨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고 영생을 누리자.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으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무리는 예수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 나섰다. 자신이 얼마나 영의 양식을 위해 노력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만남

서동희 은퇴권사 _ 성동·광진교구, 건국대 도자공예 명예교수

교역자 동정

김정희 목사 사임

강남교구와 의료선교부를 맡아 사역해 오던 김정희 목사가 3월 30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제일영광교회(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8년 부목사로 부임한 김 목사는 강북·도봉교구와 예배위원회, 자원봉사부, 베다니찬양대를 시작으로 성남·분당교구, 평생대학, 사회봉사부, 음악부, 안수집사회, 목회행정 등을 맡아 사역해 왔다. 3월 30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마가복음 1:1~8) 제목으로 이임 설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일영광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firstglory.or.kr

삼일절기념예배… 그날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며

선교부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6일(수) 수요1부기도회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삼일절기념예배를 드렸다. 장은희 권사(제1여전도회 회장)의 인도, 고은수 권사(제2여전도회 회장)의 기도, 장부교 집사(제4여전도회 회장)의 성경봉독,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탁현수 목사가 '그 이름이 되었더라(창세기 2:19)' 제목으로 설교했다. 탁 목사는 "3·1운동의 역사를 보면 당시 민족적 고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왔다. 3·1운동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하며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유경 권사(제3여전도회 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선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했다. 한진유 은퇴장로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 만세삼창의 뜨거운 함성이 본당에 울려 퍼진 가운데 기립하여 애국가 제창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학기 청소년 부모&교사기도회

교육부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 주관으로 새학기를 맞아 3월 6일(목) 50주년기념관 4층에서 중·고등부 학부모와 교사 40여 명이 참여하여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는 고등부 원종인 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여 박진배 장로(중등부 부장)의 기도 후 고등부 이영호 목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세요(시편 116:1~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기에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조율되며, 영혼의 초점을 맞춰가는 시간으로 기도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부모&교사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데,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가 참여하여 자녀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 교사들과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은퇴없는 여전도회… 2025년 연합수련회

여전도회

2025년 여전도회연합수련회가 지난 3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힘차게 비상하는 여전도회'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제1, 2, 3, 4여전도회원 942명이 참석했다. 두 번의 준비기도회 후 열린 수련회에서는 장은희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고은수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장부교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 여전도회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강사 정지훈 목사(양산중앙교회 위임)는 '형통한 자(창세기 39:1~10)'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기도와 말씀이 동반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형통이 이루어진다.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그 하늘의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각 여전도회 활동 사역의 동영상을 시청 후, 각 여전도회 사역을 위해 봉헌한 뒤 여전도회가로 마무리했다.

여전도회 가입 및 사역

제1 여전도회(만63세 이상): 미자립 농어촌교회 사역
제2 여전도회(만53세~62세): 군선교 사역
제3 여전도회(만43세~52세): 해외선교 사역
제4 여전도회(만42세 이하): MK(선교사 자녀)사역

새가족환영회… 신앙의 뿌리 잘 내려 정착하길

새가족부

올해 첫 새가족환영회가 3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열렸다. 지난해 접수하여 새가족 교육을 마친 80여 명의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환영예배는 박성은 목사(새가족부 담당)의 인도로, 이후림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서 참석자 46명(대표 정영미 성도)에게 김운성 위임목사가 수료증을 전달한 후에 새가족 간증을 들었다. 제2식당에서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는 김호섭 장로가 "새가족 분들의 발걸음을 영락교회를 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성도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시길 바랍니다."하며 인사했다. 박상수 안수집사의 기도, 갈릴리찬양대 솔

리스트들이 은혜롭게 특송하고 친교를 나누었다. 이날 새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신앙정착반에 등록한 수료자들은 일정 기간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성장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목양부

2025년 상반기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가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이번 사경회는 인천교구 주관으로 황재영 목사가 진행했으며 147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황 목사는 사경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성경통독 교재’를 사전에 제작, 배부하여 성경통독을 도왔다. 또한 성경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강의 중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코너를 진행, 성경을 읽으며 떠오른 질문을 제출하면, 다음 날 ‘사랑의 우편’ 형식으로 답변함으로써 흥미를 더했다. 그중 유익한 질문을 선정해 매일 통독 전 경건회 본문 말씀으로 나누며 성경 이해도를 높이는 등 열정적으로 진행하여 즐거운 통독 시간이 되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7시까지 통독 시간을 연장하여 성도들이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참여

하도록 도왔다.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2장을 교독 후, 자신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고, 인천교구 여전도회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전하며 사경회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노년의 풍성한 삶… 상반기 평생대학 개강

친교부

친교부(부장 양지청 장로)가 운영하는 평생대학이 지난 3월 5일(수) 오후 1시, 본당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2025년 1학기 상반기 17주 과정이 시작되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아 재학생 844명과 2025년도 신입생 108명이 참석

하여 제2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반갑게 정담을 나누는 등 활기찬 분위기로 출발했다. 첫날엔 예배 시작 전 각 58개 반의 담당 교사와 재학생은 신입생을 환영하며 출석을 체크한 후 경건회를 했다. 이어 몸과 마음이 예배에 임하도록 박소망 전도사의 인도로 체조와 찬양, 기도, 평생대학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김충섭 목사가 ‘아멘의 하나님’(고린도후서 1:20)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마친 후,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취미활동반(20여 개)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낸 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 취미활동을 통한 활력 증진, 학우들과의 친교를 통한 노년의 풍성한 삶 등을 누릴 수 있는 평생대학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길 소망했다.

본당 및 부속실, 벧엘 예배당, 지하주차장 등기구 친환경 LED로 교체 완료

시설관리부

시설관리부(부장 윤의성 장로)에서는 3개월간의 작업으로 본당의 강단, 객석, 부속실과 무대의 특수조명, 50주년기념관 지하주차장, 벧엘예배실과 부속실을 친환경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공사를 했다. 이번 조명 교체 작업은 전력 소비가 큰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를 하여 약 40%의 전력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새로 설치된 LED 조명은 예배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배당의 밝기와 색온도를 최적화하여 성도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주년기념관 지하 주차장의 조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되었다. 시설관리부에서는 50주년기념관, 선교관, 봉사관 등에도 LED 조명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교회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년 교회달력 원화전시회

홍보출판부

2025년 교회달력 원화전시회가 3월 한 달간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에서 열렸다. 전시회는 달력을 제작한 홍보출판부(부장 김주헌 장로) 주관으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함께 올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심으로 제작된 달력 속 12점의 원본 작품이다. 그림들은 8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의 익숙한 전경들로 창립 때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신앙의 흔적들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이 가운데 펜화로 유명한 건축학과 윤희철 교수의 7점은 본당, 선교관, 기도원, 50주년기념관, 베다니광장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붓 터치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옛 선교관 전경(6월)은 우리의 기억 속 건물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인물화로 유명한 강명진 목사의 작품 5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신앙적 감동을 전하는 한경직 목사의 모습(4월, 8월),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모습(2월, 10월)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교회가 저작권을 확보한 12점의 작품 중 <성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12월> 등은 판매되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후원금으로 일부 전달된다.

형형색색 꽃들의 조화
스며드는 창조의 신비

시골화원
Bauerngarten

1907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시골화원(Bauerngarten)'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색채와 풍성한 꽃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낙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식물과 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구절처럼 클림트의 정원 속 꽃들은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생명의 풍성함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한복음 15:5)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도 이 정원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클림트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만남

***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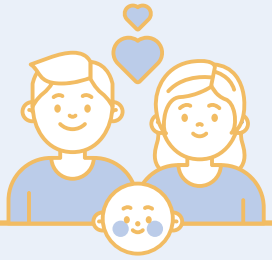
지난 「만남 3월호」 60쪽 빈센트 반 고흐의 '아몬드 나뭇가지(Almond Blossom)' 기사 중 '고흐의 형' 테오는 '고흐의 동생' 테오로 정정합니다.

2025년 4월호 통권 613호

발행 2025. 4.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헌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헌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새아기

2월

1 김도연(김한준, 배효성)
2 김유민(김정현, 이연희)
3 서이솜(서동범, 정희라)

시골화원 (Bauerngarten, 1907)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